

수요예배 및 구역 가정예배 순서지

-일 시 : 2022년 2월 23일(수) 저녁 7시30분

-장 소 : 가족들과 함께 정해진 장소

-인 도 : 가족 중에서

● 묵상기도 / 각 자 ● 기 원 / 인도자 ● 신앙고백 / 사도신경

● 경배찬송 / 새294장(통416장) “하나님은 외아들들”

● 기 도 / 가족 중에서

● 주일말씀과 삶의 나눔 / 주일예배 말씀의 은혜와 삶을 서로 나눕니다.

● 성경봉독 / “사무엘상서(삼상)15:10-23(p.433) 가족 중에서

● 말 씀 /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것”

하나님의 일꾼이 가져야 하는 가장 첫 번째 덕목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는 말씀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1. 사무엘이 근심한 까닭은 무엇이며, 사무엘은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을까?(11-12절)

사무엘은 사울이 더 이상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근심하였습니다(10-12절상). 그래서 사무엘은 온 밤을 지새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12절하). 그리고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지만 사울은 이미 전쟁의 승리를 기념하는 기념비를 갈멜에서 자기를 위하여 세우고 난 뒤 길갈로 이미 돌아갔다는 소식만 듣게 됩니다(12절하).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데 빠르게 움직이지만 사울은 자기의 영광을 위하는 일에 빠르게 움직입니다.

2. 사무엘은 길갈로 간 사울에게 어떻게 하였으며, 사울은 사무엘을 어떻게 대하였고, 여기에 대해 사무엘은 사울을 어떻게 하였습니까?(13-14절)

사무엘은 길갈로 사울을 따라 올라가 만나는데 사울은 도리어 사무엘에게 여호와께 복을 받을 것을 빌며 자신이 여호와와의 명령대로 행하였다고 말하며 선지자 행세와 자기변명을 합니다(13). 이러한 사울의 말에 사무엘은 들려오는 양과 소의 소리는 어찌 된 것이냐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음을 질책합니다(14절). 사무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바삐 움직이지만 사울은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빨라야 했지만 선지자 행세와 자기변명에 더 빨랐습니다.

3. 사울의 계속된 변명은 어떠했으며, 여기에 대해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한 것은 무엇입니까?(15-19절)

사울은 자신이 아니라 백성들이 사무엘의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드리려고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이라고 하면서 나머지는 다 죽였다고 변명 했습니다(15절). 이에 사무엘은 사울의 말을 제지하면서 하나

님께서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16절) 하나님께서 사울이 스스로 작게 여기며 겸손할 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왕으로 삼으셨습니다(17절).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대적한 아말렉의 길로 보내어 죄인 아말렉 사람의 모든 것을 다 없애지키기까지 진멸하라고 하였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목소리)에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급하며 불순종했던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18-19절, 참조 2-3절). 사무엘은 사울의 계속된 변명을 제지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계속해서 변명하며 백성들 탓으로 돌리는 일에 힘을 씁니다.

4. 사울이 불순종한 것에 대해 변명한 말은 무엇이며, 여기에 대한 사무엘의 대답은 무엇이고,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20-23절)

사울이 본인은 여호와와의 명령(목소리)를 청종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은 끌어오고 아말렉 사람들은 진멸하였는데(20절),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기 위해서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양과 소를 끌고 온 사람들은 백성들이라고 또 다시 변명하였습니다(21절). 이에 사무엘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번제나 다른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다고 하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하였습니다(22절),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고집이 센 것(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고 하면서(23절상)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고 가르치고 전했습니다(23절하). 사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지만 순종하지 않은 것은 도리어 백성이라고 하면서 자기 잘못을 남의 탓으로까지 돌립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면서 불순종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므로 불순종하는 자는 하나님도 버리신다고 가르치고 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들고 겸손하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함을 알아야 합니다.

● 나눔과 기도 / 다같이

1.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끝까지 잘 붙들림을 받고, 잘 쓰임받게 하소서.
2. 코로나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고, 일상의 삶과 정상적인 예배의 삶으로 속히 회복되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안에서 좋은 열매 거두게 하소서.
3. 자녀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미래의 비전도 보여주셔서 알게 하소서.
4. 청년부와 유치부에 좋은 교역자를 보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인도하소서.
5. 조합과의 합의안대로 잘 마무리되고, 건축에 대한 모든 준비도 잘 되게 하소서.
6. 제20대 대통령선거(3/9)와 전국동시 지방선거(6/1) 가운데 간섭하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와 일꾼들을 세워주셔서 영광스러운 나라로 써 주소서.

● 마무리 기도 / 가족 중에서

● 파송찬양/새310장(통4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 주기도문 / 다같이